

6.1.3.2. < 나. 은행잔고대사표>에 '은행잔고증명서' 컬럼

6.1.3.2.1. 은행에서 확인한 분기말 잔액을 직접 입력함

6.1.3.2.2. 송금통화예금계좌의 잔액을 '은행잔고증명서-송금통화금액' 컬럼에 직접 기재하고,
현지화예금계좌의 잔액을 '은행잔고증명서-현지화금액' 컬럼에 직접기재한다.

6.1.3.2.3. 신용카드가 있는 무역관은 분기말 신용카드명세서상의 잔액(=분기말까지의 미결제금액)을 '은행잔고증명서-신용카드금액' 컬럼에 직접 기재한다. 단, 명세서상에 분기말 미결제금액이 따로 표시가 되지 않는 무역관의 경우 0을 입력한다.

6.1.3.3. <가. 회계장부와 전도자금출납명세서 잔액 비교표>에 각 장부(송금통화예금, 현지화예금, 신용카드, 송금통화 현금, 현지화현금) 컬럼과 <나. 은행잔고대사표>에 '경리장부잔액' 컬럼 : 이 두개 금액은 항상 같으며 직접 기재하는 것이 아니고

ERP<경리장부조회>에서의 각 장부 잔액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.(신용카드의 경우 결제가 되지 않은 경우 (-)잔액이 정상)

다만, 이 컬럼에 자동으로 기재된 금액이 ERP <경리장부조회>에서의 각 장부 잔액과 다른 금액으로

표시되는 경우도 있음

6.1.3.3.1 <가. 회계장부와 전도자금출납명세서 잔액 비교표>에 각 장부(송금통화예금, 현지화예금, 신용카드, 송금통화 현금, 현지화현금) 컬럼과 <나. 은행잔고대사표>에 '경리장부잔액' 컬럼에 자동으로 표시되는 금액이, ERP<경리장부조회> 메뉴에서의 각 장부별 잔액과 다른 경우에 대한 설명 :

위 두가지 금액은 서로 일치해야하는게 원칙이나, 서로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. 대표적인 원인이 이체비목입니다.

ERP<경리장부조회> 메뉴에서 조회되는 각 장부 잔액은 이체비목으로 입력한 것도 반영된 채 표시되는게 정상이지만,

ERP<자금잔액명세서> 메뉴에 <나.은행잔고대사표-경리장부잔액>컬럼 에서 조회되는 경리장부 잔액은 이체비목으로 입력한 것은 제외된채 표시되는게 정상입니다.

따라서, 만약 분기마감일 기준, 해소되지 않은 이체비목이 남아있다면, 그 차액이 <자금잔액명세서> 메뉴에 <나. 은행잔고대사표-차액>으로 나오게 되고, 이 차액을 아래 차액설명에 설명을 해야 합니다.